한국전쟁 시기 인천의 특징과 성격

양 영 조*

Ⅰ. 머리말
Ⅱ. 북한의 남침과 인천 실함
Ⅲ. 북한군 점령하의 인천
Ⅳ. 인천상륙작전과 인천 탈환
Ⅴ. 1.4후퇴와 인천 재탈환
Ⅵ. 인천의 전쟁 구호 상황
Ⅶ. 맺음말

Ⅰ. 머리말

본 고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인천의 특징과 성격을 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천은 군사적 측면에서 전략적 해안기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기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해방 이후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각 세력이 암중모색을 하고 있던 시기 미국은 제24군단을 한국에 상륙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베이커 포티(Baker-Forty) 계획에 의하면, 미군의 한반도 점령시기는 일본 항복 이후 27일이 되는 1945년 9월 11이었으나 실제로는 9월 5일 오키나와를 출발, 9월 8일 인천에 상륙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이미 미 육군부 작전국 전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략정책단이 '연합국의 협상을 통해 미 점령지역이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서울, 인천이 소련의 점령지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지노선을 세운 것과 또 이를 기초로 작성한「일반명령」제1호에 따른 것이었다.[1]

미군의 남한점령은 제7사단을 시작으로 10월말까지 제40, 제6사단이 인천에 상륙함으로써 완료되었으며, 인천지역과 인천항의 점령 책임은 9월 11일에 상륙한 제24기지창이 떠맡았다. 또한 인천의 군정부대로는 장교 11명과 사병 53명으로 구성된 제39군정중대가 지정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인천의 시군정 업무를 수행하였다.[2]

미군정이 물러가고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전쟁 이전까지 인천은 옹진, 개성지역의 방어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38도선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특히 인천 서북방과 북방에 위치한 옹진, 개성에서는 전쟁에 버금가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옹진, 개성지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인천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군 제1사단 12연대를 비롯한 각 부대들로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구성하여 위기를 타개하곤 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전쟁 기간 인천의 역할과 의미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군의 남침 직후 인천으로의 입성 과정, 인천 시민들의 피난상황, 북한군의 인천 점령통치, 상륙 후보지로서 인천의 적합성 논쟁 과정, 인천상륙작전 무렵 인천부근에 배치된 북한군의 상황, 1.4후퇴로 인한 인천의 실함과 탈환, 인천의 전쟁 복구상황 등을 살펴보아 인천이 갖는 특징과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북한의 남침과 인천 실함

남침 당시 북한군 총사령부는 개성방면으로 제6사단과 제1사단을 투입하여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제1사단(+)은 개성-문산 방면을 공격하였고, 제6사단(-)은 개성-강화-김포-영등포-인천을 공격하였다.[3] 인천방면으로 지향한 북한군 제6사단은 6월 25일 새벽 공격개시 이후 당일 16:00 개성을 점령하고 한강변으로 진출하였고, 다음날 새벽 제15연대 1개 대대와 제13연대 1개 대대가 도하작전을 개시하여 조강리 지역 2.5Km지

1) 박찬표,「한국의 국가형성 : 반공체제 수립과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 1945-48」(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p.28.

2) HUSAFIK, *History of the United State Armed Forces In Korea*, Vol.1(서울 : 돌베게, 1989), pp.36-37.

3) 북한군총사령부는 전투경험 등을 고려하여 전쟁 직전 제6사단 제14연대와 제1사단 제1연대를 서로 예속 변

점에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그후 27일 오전 제13, 제15연대의 나머지 부대와 탱크 및 포병이 도하하였고, 이날 17:20 김포를 점령하였다.[4]

전쟁 이전 육군본부 방어계획인 작전명령 제38호에 의하면 방어중점을 의정부 지구에 두고 있었고, 김포, 인천지구를 포함한 수도권지구의 방어에는 수도경비사령부에게 임무를 부여하면서 필요시 제1사단과, 제7사단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었다.[5] 그러나 남침시 동두천, 의정부 주공격 축선이 위기에 처하면서 모든 병력이 그 축선에 투입되면서 김포-인천 방면은 사실상 방어공백 상태였다. 다행히 육군본부의 적절한 조치로 편성된 '김포지구사령부'가 강화-김포로 진출하고 있는 북한군 제6사단을 다소간이나마 지연시킬 수 있게 되었다.

남침 직후 급조된 한국군 김포지구사령부는 북한인민군 제6사단 제13(연대장 한일해 대좌), 제15연대(연대장 이방남 대좌)의 공격을 진전에서 저지하면서 소사-오류동방어선을 지탱하고 있었다. 당시 인천-서울간에는 인천-부평-소사-오류동-영등포로 연결되는 경인도로와 경인선이 있을 뿐이었고,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북한군 제6사단 진출을 지연하지 못하면 한강방어선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

북한군 제15연대는 6월 30일 영등포-인천간 도로를 차단하면서 오류동을 점령하였다. 김포사는 7월 3일 11:00까지 북한군 제6사단(-)을 방어하다가 시흥지구전투사령부로부터 철수명령을 하달 받았다. 이들은 비로소 한강방어선이 붕괴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투정찰대를 편성하여 시흥일대의 적정을 수색하였고, 북한군이 이미 시흥까지 진출한 것을 확인한 다음 안양으로 철수하였다.[6] 이로써 인천 지역은 방어공백이 되고 말았다. 북한군 제6사단장 방호산 소장은 영등포를 점령한 후 제13연대를 탱크대대와 협동으로 인천방면으로 진격하도록 하였으며, 이들은 저녁 무렵 전차 6대를 선두로 인천으로 기동하여 큰 저항을 받지 않고 7월 4월 07:40 인천을 점령하였다.[7]

경시켰다. 또한 남침 당시 개성-문산 방면의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6사단 제1연대를 제1사단에 배속시켰다. 따라서 개성-강화-김포방면의 공격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는 제6사단 제13연대, 제15연대가 개성-강화-김포방면으로 공격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6월 26일 아침 개성-문산 방면의 '공격 제2제대 제1연대'가 투입되었다고 한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제1권(서울 : 국방부, 2001), p.159.

4) 위의 책, pp.148-150.

5)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1950.3.25),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초기전투(서부전선편)』(서울: 삼화인쇄, 1985), pp.294-295.

한편 남침사실을 보고받은 미국 정부는 한반도 사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하고 26일 정오경(25.19:45-23:00 EDT) 안전보장회의를 개최, 해공군을 운용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즉, 서울-김포-인천지역의 상실을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탄약과 장비를 안전하게 도착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해공군의 엄호 하에 한국으로 수송하도록 하였고, 또 미국인 가족과 주한미대사관이 결정하는 다른 미국 비전투원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김포-인천지역이 유린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해공군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인가하였다[8]

이에 따라 미 대사관에서는 준비위원회를 편성하여 주한외국인을 포함한 철수계획을 진행시켰으며, 이 계획에 의거 26일 01:00부터 서울을 철수하기 시작한 비전투원은 미국인 1,527명을 포함한 총 2,001명의 외국인이 29일까지 3일만에 철수를 완료하였다. 무초 대사는 27일 09:00 수원으로 철수하였으며, 주한외국인은 인천에서 노르웨이 화물선을 통해 그리고 김포와 수원비행장을 통해 각각 일본으로 철수하였다.[9]

한편 전쟁 직후 정부가 당면한 큰 문제중의 하나는 민심의 동요를 막는 것과 함께 피난민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었다. 정부는 남침직후 6월 25일 가장 먼저 질서유지와 민심동요의 예방차원에서「긴급명령」제1호인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하달하였고,[10] 내무장관이 06:30 전국 경찰에 비상경계령[11]과「치안명령」제26호를 하달하여 경비를 강화케 하였다. 또한 정부는 생필품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품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경제혼란을 예방하고자 28일「긴급명령」제2호인 '금융기관 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하달하였다.[12]

다음으로 고려된 조치는 피난민에 대한 긴급 대책이었다. 그러나 사전에 전쟁으로 인한 피난 비상계획이나 철수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었으므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

7)『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제1권, p.151 ; ATIS, Interrogation Rpts, N.K. 6th Div, 홍성호전사, 11 Aug 50,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이에 의하면 북한군 제6사단은 영등포에서 1개 전차대대와 합류하였으며 당시 전차 17대를 보유하였다.

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미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상)(서울: 국방부, 1990), p.72.

9) 위의 책, p.134.

10) 국방부,『한국전란1년지』(서울 : 국방부, 1951), pp.CC48-49 ; 경찰 발표에 의하면 당시 불순분자들이 저지른 태업활동은 없었지만 도시지역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는 수없이 증가되고 있었다. US 8th Army,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1952, unpublished), pp.2-3.

11)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1권(서울 : 국방부, 1967), p.631.

12) 국방부,『한국전란 1년지』, pp. C48-C49.

고,[13] 점차 상황의 급박함으로 인하여 그저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데 분주하였다.

6일 27일 새벽 1시 피난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된 비상국무회의에서 이범석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 철수를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참석자의 대부분이 "안일하고 낙관적"이었다. 결국 이 심야 회의에서는 수원 천도만을 결정하고 시민철수문제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14] 거의 같은 시각인 새벽 2시경 이미 대통령도 대구를 향해 피난을 떠나고 있었다.[15]

이러한 혼란 상황은 인천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인천시장인 지중세의 행동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인천시의 최고 책임자로서 긴급사태에 직면하여 혼돈 속에 빠져 있던 인천시민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청직원들에게만 "사태가 급박하니 피난은 각자가 행동을 취하라는 지시를 하고 자신도 시청을 포기하고 피난길에 올랐다. 이것은 시장이 서울시 수도국장으로 재임 중 인천시장으로 발령 받아 6월초에 부임해온 관계로 관내 실정을 파악하기 이전에 발발한 전쟁이라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16]

옹진 지역에서는 25일 아침부터 피난민들이 밀려오고 공무원, 경찰 및 가족들이 사곳으로 밀어 닥쳐 모든 배를 동원하여 용호도에 집결시켜 사곳에 운집한 피난민을 수송하였다.[17] 26일 11:00 제17연대 병력이 해상 철수준비를 하자 미처 피난가지 못한 주민들이 모여들어 결사적으로 LST에 승선하려 하였다. 이에 제17연대는 철수병력과 피난민을 합한 약 4천여 명을 승선시켜 출발하였으며, 다음날 인천항에 도착하여 아수라장을 이루었다.[18]

남침 당일 수많은 피난민들이 김포방면으로부터 계산동, 부평, 장수동을 거쳐 남하하여 피난하는 것을 목격한 부평, 남동 등의 인천시민들은 사태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피난길을 서둘러 떠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인천지역은 전쟁을 피해 쏟아져 나온 피난민들로 극도로 혼란하였다.[19] 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였다. 주민의 소개 계획 없이

13) US 8th Army,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p.2.
14) 중앙일보사,『민족의 증언』제1권(서울 :중앙일보사, 1985), pp.33-34.
15) 위의 책, p.53. 대통령 수행비서 황규면은 "27일 새벽 2시 피난길에 올라 일단 대구까지 내려갔던 이박사가 다시 북상하자고 하여 동일 정오 무렵 대전까지 되돌아 왔습니다"고 하였다.
16) 인천직할시편찬위원회,『인천시사』(상)(인천 : 인천시사편찬위원회), 1993, p.456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인천광역시사2 인천의 발자취』(인천 : 인천광역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2), p.752.
17) 「옹진경찰서 용호지서장 김두의 경사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18) 전편위,『한국전쟁사』제1권, p.493 ;「갑판사관 정원석소위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19) 인천직할시편찬위원회,『인천시사』(상), p.456.

시행된 피난행렬은 통제 불가능한 무질서를 초래하였다. 피난민들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남쪽으로 행해 피난길에 나서고 있었다. 주민들은 탈출로를 찾아 아우성쳤고 모든 거리는 사람들로 메워졌다.[20]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체계적인 피난민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에 전력하고 있었다.[21] 인천에서는 보건부가 옹진 방면으로부터의 환자를 인천도립병원에 각각 수용하여 치료토록 하였으며, 임시 방역반을 편성하여 전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22] 인천시 '비상시국대책위원회'(비상사태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당면한 긴급행정조치와 후방 치안문제를 담당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인천의 지도층 인사인 하상훈, 정해관, 전두영, 이열헌과 한청 시단장 김득하, 검찰 인천지청장 오창섭 등이 참석하여 각 기관이 소임을 분담하고 식량 및 유류 확보 문제와 전시상황에 대한 토의를 갖고, 비상사태대책에 관한 회의를 열어 적 오열 검색, 후방치안, 공산군의 침투 분쇄 등 전시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하였다.[23] 이들은 인천시청의 각 구장, 군·경 지휘관 및 사업장의 대표 등을 구성하고 위원회 조직, 군사 원호, 민심안정 및 계몽, 직장별 궐기대회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경기도경에서는 행동방침을 내무부에 즉각 문의한 후 경찰병력을 경기도 경찰국에 집결시키기 위해 비상 소집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비상소집에 응한 경찰은 소수에 불과하여 소대 병력만이 보안과장 황규섭의 지휘하에 집결하였을 뿐이었다.[24] 당시 수원으로 내려갔던 동인천 경창서장 김회동은 김기찬 순경과 함께 6월 30일 복귀하였다. 이들은 인천이 공산군에 점령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인천으로 복귀하였다. 당시 인천은 보도연맹단원들이 남침과 동시에 적기를 앞세우고 시가행진을 하는 등 북한군을 맞이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6월 30일에 도원동에 모여 정부기관 접수를 협의하여 인천시청을 점령한 상태에서 인민군 환영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날 인천의 상황은 미 극동군사령부 정보보고에 의하면 300여명의 좌익 게릴라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었다.[25] 이에 동인천서

20) 서경석,『전장감각』(서울 : 샘터, 1999), p.33.
21) 국방부,「일반명령 제40호」(1950.7.9),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22) 위의 책, p.633.
23) 인천직할시편찬위원회,『인천시사』(상), p.456.
24) 위의 책, pp.456-457.
25) FEC, G-2 IR NO.25(1950.7.210400-220400),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이정겸 수사계장의 지휘하에 이들을 소탕하고 치안을 유지하려고 만전을 기하였다.[26]

부근의 각 경찰 병력들도 경기도경으로 이동하여 집결하였다. 연백, 배천 경찰은 강화일대로 철수하여 월곳포에 집결하고 있던 중 적이 개풍군 영정포를 향해 도강작전을 전개하는 것을 관측하고 강화경찰서 경찰대원과 함께 인천의 경기도경으로 철수하였다.[27] 경기도경에 집결한 경찰은 즉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비상근무규칙 즉, 식량확보, 생활필수품통제, 이재민수용, 기획, 운수, 정보, 상수도설비 및 교량설비, 시유 건물정비, 구호, 기타 시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설정하였으나, 전황은 급박하게 전개되어 시행하지 못하였다.

1950년 7월 3일 23:00 북한군 제6사단 제13연대가 김포를 통해 탱크 6대를 앞세우고 인천으로 진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천을 끝까지 사수하고자 결심하였던 한청 시단장 겸 청년방위대 제2단장 김득하가 전사하기도 하였다.[28] 7월 4일 07:40 인천이 적에 점령되자 미쳐 피난길에 오르지 못한 시민들은 서둘러 피난길에 올라 남으로의 행진을 하였다. 인천이 적의 치하에 들게 되자 보도연맹에서 교도를 받아 온 좌파 세력들이 경찰서를 점거하고 양민을 반동분자로 몰아 학대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다. 이로써 인천 시민은 90여일 간의 공산당원의 치하에 모진 고초를 겪게 되었다.

Ⅲ. 북한군 점령하의 인천

전쟁 초기 인천에는 다음과 같은 북한군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7월 4일부터 7일까지 인천을 점령한 부대인 북한군 제6사단 제13연대가 집결해 있었으며, 이 부대가 남진한 뒤 후속하여 북한군 제13사단 제23연대가 7월말까지 주둔하였고, 그후 북한군 제9사단 제87연대가 인천경계 임무를 띠고 각각 주둔하였다.[29]

북한군 제13사단(제19,제21,제23연대)은 전쟁직전 신의주에서 민청을 기간으로 창설되어 남침 직후인 7월초 서울로 남하하였고,[30] 북한군 제9사단은 50년 7월 11일~8월 12

26) 인천직할시편찬위원회, 『인천시사』(상), p.457
27) 강화사편찬위원회, 『강화사』(강화 : 강화문화원, 1988), p.313.
28) 인천직할시편찬위원회, 『인천시사』(상), p.458.
29) 북한군 제6사단은 제4사단 뒤따라 남하하여 7월 8일 오후 늦게 평택에 집결하였다. FEC,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Section5(1951, unpublished), pp.64-70.
30) ibid., pp.72-73.

일간 서울 경계임무를 수행하다가 제87연대가 인천경계를 위해 잔류하였고 제85, 제86연대는 영산방면으로 이동하였다.

북한군이 남침한 직후 인천에는 전쟁 이전 지하조직을 갖고 있던 남로당원과 보도연맹원들이 1950년 6월 30일 일시에 일어나 활동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독무대로 변하였다. 이들은 지방행정기관을 접수하고 각 동리에는 자위대를 편성한 다음 남로당에 가담하지 않은 양민의 집을 급습하며 체포 또는 협박하였다.

보도연맹은 소위 남로당원 등 과거 좌파계 조직에서 활동해온 자들을 1949년 전향 서약문을 받고 전향한 자들이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들의 동향은 지방마다 차이가 있지만 인천지역 보도연맹원들은 북한군 제6사단 제13연대가 인천을 점령하면서부터 적극적인 친공 활동을 전개하였다. 붉은 완장을 두른 이들은 경찰서, 지서를 접수하고 치안을 담당한다는 미명하에 소위 반동자 색출에 착수하여 평소 그들과 소원하였던 일반 시민들을 잡아들여 구타 고문을 자행함으로써 인천시를 일시에 험악한 분위기로 만들었다.

전평, 민청 등 좌익청년단체들은 북한군의 지도하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밑에 자위대를 조직하여 반공세력의 색출과 조사에 착수하였다. 북한군의 점령초기 인민재판식의 양민학살이 발생하였다. 원통고개 학살 사건은 1950년 7월 6일 지금의 간석동 속칭 원통고개에서 약 15명의 양민을 두 줄로 세워 놓고 일시에 발포하여 학살한 사건이었다. 그들은 학살 후에도 시신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돌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31]

7월 4일 야간부터 북한군은 지방 적색분자들의 안내로 각 기관을 접수하였다. 해광사에 정치보위부를 설치하고 시내 요소요소에 그 분소를 마련하여 각 보안서 및 보안 분소를 지휘하여 민족진영계열 인사 및 군경, 소위 반동분자 색출에 온 힘을 기울였다. 다행히 인천은 북한군의 남침 개시 일로부터 시내 진입까지 9일간의 시간의 여기가 있었기에 반공인사들이나 공무원, 지방유지 등의 인물들은 대부분 피난할 수 있었다.[32]

그러나 북한군은 미처 피난하지 못한 우익계 인사들을 체포하여 인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고 기소한 후 학익동 소년교도소로 이감하였다. 인천서 유치장은 1,2층 26개의 감방으로 1층에는 일반 범죄자를 수감하였고 2층에는 소위 사상범 즉, 민족진영 인사들 100여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한편 인천교도소에는 사상범으로 기소되어 수감중인 200여명의

31) 인천직할시편찬위원회,『인천시사』(상), p.458.
32) 위와 같음.

수감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안타깝게도 전 인천시장이었던 표양문이나 전 부평서장인 신보현 등의 인사들도 끼어 있었다.[33]

북한군은 인천에 침입한 이후 즉시 지방인민위원회 재건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인천시 인민위원회을 선출하고 각 동에는 동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위원장과 간부들을 선출하였다. 대체로 위원장은 좌익계가 임명되었지만 어떤 동은 유자격자가 없어 미처 피난하지 못한 인사를 상징적으로 내세워 강제로 위원장에 취임하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각 동에 선전실을 두어 거의 매일 주민들을 집합시킨 후 입대, 노력동원, 모곡 등을 강요하였으며 심한 경우에는 집회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즉각 입대와 노력동원을 강요하기도 하였다.[34]

이들은 아군의 상륙작전과 공습에 대비하여 각 해안선 저지대와 도로변 산기슭에 원근 인민을 동원하여 참호를 구축하였으며, 또 전쟁 초기부터 각 도시군 별로 소위 의용군을 강제 모집하여 전선에 투입시키고 있었다. 인천시민들 가운데 당시 반동자로 몰리고 있었던 장정 가운데는 자위대의 학정을 벗어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의용군에 지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북한군은 통상 7월 중순 이후 주로 남한지역의 징집자들로 병력을 보충하고 있었으며, 점령지 주민들이 대부분 북한군의 위협을 받아 마지못해 협조해야 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상황이었다.[35] 당시 북한군에 의해 징집된 노무자들의 경우 기후, 지형 등을 불문하고 1인당 하루 평균 20Kg의 보급품을 20~30Km 거리를 운반하고 다른 마을 주민들이 인계 받는 릴레이식으로 강제사역을 하였다.[36]

북한군과 좌익들의 학정은 북한군이 낙동강전선에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저지된 동년 9월부터 극에 달하고 있었다. 자위대원의 검문검색이 더욱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리의 판정위원들은 현물세 조정에 필요한 세원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각종 농작물을 낱알낱알 세어 농민들을 핍박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현지조달계획은 곧바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은 인민위원회 등을 통해 인력과 식량강탈을 가속화하였으나, 당시 절약농가가 대부분인데다가 주민들의 비협조로 강압적인 현지조달은 많은 차질이 있었다.[37]

33) 위와 같음.
34) 위와 같음.
35)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상)(서울 : 신오성 ,1995), p.34.
36) 육군본부(역),『한국전쟁』제2권(서울: 육본, 1986), p.76.
37)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USGPO, 1961), p.264.

Ⅳ. 인천상륙작전과 인천 탈환

가. 상륙지 인천에 대한 찬반 논쟁

낙동강 전선에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국가존망이 달린 백척간두의 위기를 넘긴 국군과 유엔군은 인민군을 일거에 포위 격멸한다는 전략적 목표 하에 전쟁초기부터 비밀리에 추진해온 상륙작전을 즉각 단행하고 이어 대반격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본 절에서는 주로 상륙 후보지 인천을 놓고 논의하였던 찬반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맥아더 장군이 계획을 발전시키는 동안 미 합동참모본부(JCS)는 적 후방에 상륙하겠다는 작전계획 자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하였지만, 상륙지역을 인천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주로 미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 대장, 해군 참모총장 서먼 대장, 그리고 미 해병대의 대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인천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동의를 유보하였다.

해군측 반대의 핵심은 인천지역이 조수, 수로, 해안조건에서 상륙작전에 많은 제한요소를 갖고있기 때문에 상륙의 적지가 못된다는 것이었다. 즉, 인천항에 이르는 수로는 협소한 단일수로로써 대규모 함정의 진입이 불가능하며, 적이 기뢰를 매설할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또 인천해안의 간만의 차가 10m 내외로 간조시 해안에는 2~5Km의 광대한 갯벌지대가 형성되며, 수심이 얕아 상륙주정 및 상륙함의 해안 접안이 곤란하고 상륙이 가능한 만조일수는 월 2~3일 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상륙 해안으로 적절한 곳도 없고 해안방파제와 해벽은 그 높이가 5m 이상으로써 만조를 제외하고 보조 사다리가 있어야만 상륙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상륙지에 대한 의견대립이 계속되자 합동참모본부는 맥아더 장군 및 그의 참모들과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육군 및 해군 참모총장을 동경에 있는 극동군사령부로 파견하였다. 이들 일행은 8월 21일 동경에 도착하였으며, 극동에 있는 상급 해군장교들과 맥아더 장군의 주요 참모요원들을 만나 먼저 개별적으로 회담하고, 그 이튿날 한국전선을 시찰한 뒤, 8월 23일 오후에 극동군사령부 회의실에서 인천상륙작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 회의에 참석하였다.[38]

38) 국방부 전편위(역),『미 합참본부사 한국전쟁』(상), p.162.

회의에는 맥아더 장군과 코린스 장군, 셔먼 제독 외에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중장,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 중장, 알몬드 장군, 라이트 장군 그리고 합동전략기획 및 작전단 요원과 인천상륙작전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게 될 제90기동부대 사령관 도일 해군소장 및 해군문제를 다룰 그의 참모요원 등이 참석하였다. 먼저 작전참모 라이트 장군이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이어 도일 제독이 1시간에 걸쳐 해군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설명한 후, 비관적인 어조로 "인천상륙작전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이를 건의할 수는 없다"[39]라고 결론을 지었다.

다음으로 코린스 대장도 인천 대신에 군산을 상륙지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천은 거리가 멀어 제8군과 제10군단의 연결작전이 불투명하고 군산은 자연장애물이 없어 상륙 조건이 인천보다 좋을 뿐만 아니라 상륙 후 논산과 대전에 이르는 적의 병참선에 근접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제의는 셔먼 제독도 지지하였다.[40]

끝으로 맥아더 장군은 왜 인천에 상륙해야 하는가의 이유에 대해 "적은 그의 후방을 무시하고 있고 병참선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으므로 서울에서 신속히 이를 차단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투부대는 사실상 모두 낙동강 일대의 제8군 정면에 투입되어 있는데 훈련된 예비병력마저 없어 전세를 회복할 만한 능력이 거의 없다"[41]라고 설명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계속해서 전략적, 정치적, 심리적 이유를 들어 서울을 신속히 탈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때 그는 지도를 가리키면서 인천을 목표로 제8군이 '망치', 제10군단이 '모루'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코린스 대장이 제의한 군산에 대해 "군산에 상륙한다면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거나 적을 격멸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대응하였다. 다시 그는 "인천상륙은 유엔군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술방책이며 인천의 지리적 곤란성 때문에 적이 인천을 상륙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점으로 인하여 기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해군은 지금 그것을 해낼 것이다. 그것은 10만 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42]라고 끝을 맺었다.

다음날 해군참모총장 셔먼 제독은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중장, 태평양 전구사령관 레드포드 대장, 태평양함대 해병대 사령관 세퍼드 중장, 제1해병사단장 스미스 소장과 해군지

39) 위의 책, p.162.
40) 위의 책, p.163.
4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trh to the YALU*, p.493.
42) 국방부 전편위(역), 『미합참본부사 한국전쟁』(상), p.163.

휘관 회담을 가졌다. 그들은 상륙을 위한 보다 양호한 장소는 인천 남쪽 30마일 지점, 언제나 물이 깊어 상륙할 수 있는 아산만 해안의 포승면(아산만 방조제 지역)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세퍼드 장군이 대표로 맥아더 장군을 만나 이를 제의하고 설득하려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43]

워싱톤으로 복귀한 코린스와 셔먼은 존슨 국방장관, 트루만 대통령에게 방문결과를 보고하였다. 국방장관은 맥아더 장군의 계획을 확고하게 지지하였고, 그는 후에 대통령의 지지도 얻어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결국 8월 28일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맥아더 장군의 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러면서도 군산지역에 대한 계획준비도 병행하도록 단서를 부치고 금후의 진전상황에 대하여 적시에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맥아더 장군은 8월 30일에 인천상륙작전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9월 6일에 상륙작전 일자를 9월 15일(D일)로 확정 하달하였다.[44]

나. 상륙작전 직전 인천지역 북한군 배치 상황

미 제10군단의 정보판단에 의하면 1950년 8월말 인민군은 거의 모든 전투역량을 부산 교두보 확보를 위해 낙동강 전선에 집중하고 있었고 서울을 비롯한 후방지역에는 지역경비부대와 병참선 경비부대 그리고 훈련이 미숙한 신편 부대가 산재해 있었다. 북한에서 발행한『조선전사』제26권에는 인천상륙작전에 대비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45]

김일성 동지는 적이 상륙을 시도하는 목적은 전선과 후방을 끊으려는데 있으며 상륙 지점은 인천-서울 지구라는 것을 폭로하였다.(중략) 상륙 기도가 확실해졌을 때 이 지역의 방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서해안 방어사령부를 조직하고 인천-서울 방어부대들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게 하였다. 그리고 군산-인천사이의 서해안 지역에 배치된 경비대, 보안대들을 여기에 소속시키고 그 지역의 전투 력량과 기재를 인천-서울지역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해안 방어사령관으로 민족보위상 최용건 동지를 임명하였다.

43) 위의 책, pp.163-164.
44) 위의 책, p.165.
45) 북한사회과학백과사전출판사,『조선전사』제26권(평양 : 사회과학사전출판사, 1981), p.96
4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trh to the YALU*, p.506.

이에 의하면, 북한군은 상륙 작전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지만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인천지역에는 월미도에 제226독립 육전연대 제3대대 소속의 400여 명과 제918 해안포연대 예하부대가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46] 인천 시가지에는 신편 제9사단 예하 제87연대가 8월 12일부터 인천지역 방어임무를 인수하여 담당하고 있었다.[47] 인천시가지 중 월미도 제방으로부터 북동쪽 주안염전까지 5~6Km의 해안방어는 단대호 미상의 여단인 제884군부대 예하 1개 대대가 배치되어 방어하였다.[48] 이에 대한 북한군 제884군부대 제5보대 대대 전투명령(1950.8.29)에 의하면,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은 2주일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적 병력규모는 지역경비부대를 포함하여 약 2,000여 명에 달하고 있었다.[49]

또한 서울지역에서 경계 중이던 제9사단(-)은 8월 12일에 낙동강 전선으로 이동하였으며,[50] 제18사단도 9월 중순경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직전에 서울을 출발, 낙동강전선으로 이동하고 있었다.[51] 이때 서울지역의 적의 병력은 김포지역의 500명을 포함하여 약 5,500명이었다. 그밖에 9월 4일까지 추가로 증원된 2,500여 명을 합하면 서울-인천지역에서 활동중인 적의 총 병력은 약 10,000여 명 정도의 규모로 판단되었다.[52]

낙동강 전선에서 미제8군과 대치하고 있던 전투부대가 인천-서울지역에 증원될 가능성은 경부국도 가까이 대구 주변에 배치된 인민군 제3, 제10, 제13사단이 가장 빨리 증원될 수 있을 것으로 고려하였다. 미 극동군사령부는 북한 해군 역시 인천상륙작전을 방해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시 정찰함정 수 척으로 구성된 5개 전대가 있었으나 이 중 1개 전대만이 진남포 부근에 있었고 나머지는 동해안 원산에 배치되어 있었다. 북한 공군은 성능이 저하된 19대의 소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상륙작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었다.[53]

미 제10군단이 인천에 상륙하고 급속히 한강으로 진격해 들어오자 적군은 당황한 나머

47) FEC, *Hisy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p.146.
48) 인민군제884군부대 제5보대 대대전투명(1950.8.29),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4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trh to the YALU*, p.508.
50) FEC, *Hisy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p.146.
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3권(서울 :국방부, 1971), p.618.
5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trh to the YALU*, p.500.
53) ibid., p.500.

지 서울 주변의 잡다한 모든 부대들을 서울로 집결시키고 심지어는 낙동강전선으로 이동중인 병력을 끌어올리는 등 서울지역 방어력강화에 동분서주하였다. 이는 김일성의 직접 지시로 서해안지구 방어사령관에 의해 조치되었다.[54]

이에 따라 인천상륙작전 직전 서울을 떠나 낙동강전선으로 남하 중이던 제18사단이 되돌아와 수원부근에 잔류했던 제70연대와 더불어 경인지역 방어에 임하였다. 이때 사단은 9월 초순 신의주에서 이동하여 서울에 도착한 제42전차연대를 배속 받음으로써 T-34전차 18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생포된 장교 2명에 대한 포로심문결과 이중 1개 연대규모의 적부대가 이미 영등포방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55]

또한 개성남쪽에 위치해 있던 제107보안연대는 1개 대대를 예비로 두고 부평, 김포, 그리고 강화부근으로 각각 1개 대대씩 전개시키고 있었다.[56] 이들의 이동상황은 9월 17일 미군의 공중정찰에 의해 관측되었으며 9월 18일 이후 김포반도에서 체포된 포로에 의해 단대호도 확인되었다.

이밖에 9월 18일 이후 남쪽과 북쪽에서 서울방향으로 이동하는 다수의 적 부대가 공군에 의해 관측되었지만 주요 전력이 낙동강전선에 투입된 상태여서 신편 또는 지역경비부대만이 서울에 집결할 수 있었다. 어찌되었든 미 해병제1사단이 한강도하를 준비할 무렵 서울 방어를 위해 동원된 적의 규모는 약 2만 명으로 판단되었다.[57]

다. 상륙작전과 인천탈환

인천상륙작전은 남침 직후인 1950년 7월 첫째 주에 맥아더 장군이 그의 참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에게 하달한 "서울의 적 병참선 중심부를 타격하기 위한 상륙작전계획을 고려하고 상륙지점을 연구하라"는 지시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54) 북한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제25권, p.26에 의하면, "김일성 동지께서는 적들의 력량이 대대적으로 증강되는 정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서해안 방어사령부로 하여금 인천-서울지구 방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주시었다.(중략) 락동강 전선의 일부 부대들과 남포, 문천, 해주지역에 있던 땅크부대들, 종심 깊이에 있던 예비부대들 그리고 철원, 금천지역에 있던 련합부대들이 서울지구에 파견되었다"고 하였다.

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서울 : 국방부, 1983), p.220.

56) 위의 책, p.219 ; 인민군 제107보안부대 김포방어계획 노획지도(1950.9.21),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57) 위의 책, p.220.

상륙작전의 기본계획을 확정한 맥아더 장군은 즉각 상륙군 부대의 편성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군단에 편성된 주요부대로서는 미 제1해병사단, 미 제7보병사단과 국군 해병 제1연대, 국군 보병 제17연대였으며 이밖에 지원부대로서는 미 제2특수공병여단 등이 편성되었다.[58] 제7합동기동부대의 인천으로의 항진과 사전폭격은 상륙계획의 작전보안을 유지하고 특히 상륙지역과 일자를 기만하기 위한 작전과 함께 실시되었다.

인천으로의 상륙은 9월 15일 새벽에 시작되었다. 02:00 월미도에 상륙할 미제5해병연대 제3대대상륙단의 선견공격대가 인천수로로 진입하기 시작하여 얼마후 사전에 투입된 미 해군정보장교 크라크(Clark)대위가 밝혀주는 팔미도 등대의 안내를 받아 무난히 인천항에 이르렀다. 이들은 05:00 고속 항모부대의 함재기들이 어두운 새벽 하늘로 날아올라 월미도와 인천 내륙지역에 맹렬한 공중폭격을 실시하였다. 그 뒤를 이어 구축함의 첫 포탄이 월미도에 작렬하였고, 로케트포함이 녹색해안과 그 주변의 적 진지에 대해 1,000여 발의 포탄을 퍼붓었다. 드디어 상륙주정(LCVP) 7척이 제1파를 구성하여 해상에 설정된 공격개시선을 통과하였다.

상륙한 10대의 전차는 6대의 M26 퍼싱전차와 2대의 불도저 1대의 화염방사용 전차, 1대의 구난전차로 구성되어 있었다. 적들에게는 주로 전차가 대응하였다. 불도저가 M26 퍼싱전차와 보병의 엄호를 받으며 적의 참호와 교통호를 밀어붙였다. 화염방사기 전차는 참호 안에 화염을 퍼부었다. 섬 안의 동굴 진지에서도 일부 적들의 저항이 있었으나 살아남은 대부분의 다른 적들은 이미 전의를 잃고 투항하였다. 이렇게 하여 대대는 08:00에 월미도를 확보하고 섬 전반에 걸친 소탕작전은 정오쯤에 완료하였다. 월미도 상륙작전시 미 해병의 총 피해는 부상자 17명뿐이었다. 반면 제5해병연대 제3대대는 적 사살 108명을 확인하였고, 포로도 136명을 생포하였으며, 그 밖에도 150여 명이 참호 속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적색해안과 청색해안에 상륙할 미 해병 제5, 제1연대전투단 병력을 태운 함정들이 인천수로를 따라 서서히 인천항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및 해군 항공기는 인천 및 경인국도를 연하는 내륙지역에 대한 도로와 목표물에 대하여 계속해서 차단공격을 가하였고 해군 함포사격 지원전대는 인천항에 더욱 근접하여

58) 위의 책, pp.50-53.

맹렬한 포격을 가하였다.

미 제1해병사단은 D일 아침 만조시간에 맞춰 월미도를 탈취한데 이어, 오후 만조시간에 맞춰 인천시가지에 상륙하였고 인천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0-A선 및 0-1선을 최초 계획대로 확보하였다. 이 작전에서 돌격상륙부대는 전사 21명, 실종 1명, 부상 174명의 피해를 입었고 상륙부대가 북한군 300여 명을 생포하였다. 이날 인천에 상륙한 병력은 약 13,000여명에 달했으며 450대의 차량을 포함한 다량의 장비와 보급품이 양륙되었다.[59]

9월 16일 아침 해병 제5연대와 제1연대는 07:30에 상호연결을 이룸으로써 인천의 방어선을 더욱 강화시켰고 이들 부대는 해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계속 진출하였다. 미 해병 항공기 8대는 이날 아침 인천 동쪽 5Km 지점에서 인천으로 진입하는 적 전차 6대를 발견하고 전차 3대를 격파하고 보전 협동부대를 분산시켰다. 그러나 해병조종사 심프슨(William F. Simpson) 대위의 비행기가 적탄에 맞아 불타는 적 전차 옆에 추락되어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이로써 인천에 상륙한 지 24시간 만에 해병 제1사단은 해두보를 확보하였다.

인천시가지 소탕작전은 국군 해병 제1연대가 담당하였다. 9월 16일 아침 국군 해병 제1연대는 인천시가지 중앙을 통과하는 경인선 철도를 기준으로 남쪽지역은 제3대대가 북쪽지역은 제1대대가 분담하여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제3대대가 담당한 지역은 응봉산 일대와 시가중심지였다. 상륙작전 시 항공폭격과 함포사격 그리고 상륙 부대의 돌격작전에서 살아남은 적은 대부분 인천지역으로부터 도주한 것으로 보였으나 도주의 기회를 놓친 상당수가 민간인으로 변장하여 주택가에 숨어들어 있었다. 이들은 소탕작전 중 많은 수가 시민들의 신고로 생포되었으며 일부는 전의를 잃고 자진투항 하였으나 일부는 저항 또는 도주를 시도하다가 사살되기도 하였다.

전쟁초기 미처 피난하지 못한 채 집안에 숨어있던 시민들은 파리한 얼굴로 국군을 알아본 뒤에야 밖으로 뛰쳐나와 국군을 얼싸안고 울기도 하고 큰소리로 만세를 부르기도 하였다. 시가지에는 태극기의 물결이 점점 불어나고 애국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적 치하에서 활동하던 부역자를 속속 찾아냈으며 소탕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인천경찰서에 도착하여 해병들은 구치소 안에서 학살당한 무고한 시민들의 시체 100여 구를 보고 공산주의자들의 무자비한 만행에 치를 떨었다. 연대는 이날 시내의 주요 공공시설을 장악

59) 위의 책, pp.165-167.

하고 야간에는 시내외 요소에 대한 경비와 순찰을 강화하였다. 인천 해안보를 확보한 미 해병 제1사단은 9월 16일부터 한강으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유엔군과 국군 해병대의 상륙에 밀려 퇴각하는 북한군은 또 한 차례의 학살을 저질렀다. 인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100여명의 정치 사상범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쫓기는 불안과 공포가 학살의 형태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천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200여명은 함포사격으로 인해 전화선이 두절되어 인천경찰서 수감자들과는 달리 학살을 면하였다.[60]

1950년 9월 17일 인천이 수복되자 일반시민들은 피난처로부터 대부분 귀환하여 전화를 입은 참담한 여건 속에서 그날그날을 보내고 있었다. 피난해 갔던 시청 직원들도 속속 귀환하였으며, 표양문과 황해승이 교대로 임시 시장이 되어 혼란을 수습하고자 하였으며, 12월에 이르러 지중세 시장이 귀임 하였다. 경찰서는 각 청년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부역자의 색출, 처리에 노력하였다.[61]

Ⅴ. 1.4후퇴와 인천 재탈환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공격으로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됨으로써 대규모의 2차 피난민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2차 피난민 철수계획을 수립한 것은 유엔군이 평양을 포기했을 무렵부터였다. 평양, 원산 요부에서 중공군을 저지하지 못하면 방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시민들은 전세가 갑자기 반전되어 국군과 유엔군이 밀리게 되자 크게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중공군 참전이후 시민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길을 확보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 12월 중순경 부녀자와 노약자들이 먼저 피난하도록 포고문이 게시되었고, 이어 12월 24일 시민 소개령도 발표되었다.[62] 유엔군이 평양을 포기한 1950년 12월 4일 38선 접경 및 그 이북전역에 다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며 50여만 명에 달하는 이북 피난민 구출을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졌다.[63] 평양을 포기하던 12월 5일 신속히 국립박물관 등 주요 물품

60) 인천직할시편찬위원회, 『인천시사』(상), p.459.
61) 위의 책, p.467.
62) 중앙일보사,『민족의 증언』제3권, p.260.
63) 대한민국 국회, 『국회사』(제9회 임시국회)(서울: 국회, 1971), p.597.

의 후송 명령을 하달하였고, 12월 8일 부녀자의 소개 허용이 발표된 후 12월 하순부터 피난 수송 및 구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였다.[64] 초기작전에서의 교훈을 고려하여 북한 피난민 대열 속에 침투해 있는 오열에 대한 대책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다.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철수작전을 전개하게 되자, 일반 행정 기관원 및 청년방위군 해당자 반공투사 등을 동년 12월 19일 출발하여 대구, 부산, 제주 등지로 피난 집결토록 시달하였다. 이에 일반 공무원 학교직원 기타 기관원 및 민간인들은 남하하였다. 또한 당시 각종 선박과 미군용 상륙정을 통해 청년방위군과 민간인 5천여 명이 군산, 부산을 경유하여 제주도에 기착하였다. 이리하여 수복이후 재정비된 청년방위군은 1.4후퇴 시 해안지구를 경유하여 제주도에 도착하면서 부대를 재편성하고 일부장정은 현역으로 잔여는 제주훈련소 교육대에 입영하였다.

인천 시민의 경우 12월 30일까지는 상당수가 철수하였고, 이듬해 1월 3일까지는 나머지도 피난하여 1월 5일 공산군이 들어왔을 때 시내는 완전히 텅 빈 유령의 도시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정부자체도 12월 하순부터 소개를 시작하여 1월 3일의 각료 철수를 마지막으로 부산 도청에 천도를 마쳤다.[65]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 진지에서 철수하자 이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 주민들도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피난민들의 철수가 작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미제8군사령관은 2일 특별 훈령으로 피난민의 전선 진지 통과를 금지토록 하고, 서울-인천간의 이동도 경인국도가 아닌 좌우측의 보조도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1.4후퇴 당시 인천의 실정을 살펴보면, 1월 4일 오전 9시 시청직원이 출근하자 지중세 시장이 시청 직원들에게 "사태가 급박하니 시 직원은 집단 피난하기로 하였다. 희망자는 이에 참가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시 직원의 약 반수가 이에 참가하여 중요서류를 휴대하고 부산으로 피난하였다. 이에 일반시민들도 다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으니, 당시는 어느 해보다 극심한 혹한과 눈보라가 겹쳐 도로는 빙판으로 변하여 고행의 피난길이 되었다.[66]

1951년 1월 17일 사회부장관은 대구와 부산에 운집한 대규모 피난민을 각 지역별로 산

64) 부산일보사,『임시수도 천일』(하)(부산: 부산일보사, 1984), p.316.
65) 위의 책, pp.313-314.
66) 인천직할시편찬위원회,『인천시사』(상), pp.468-469
67)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51.1.17일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한국전쟁 자료총서』16집(서울 : 국방부, 2001).

개 계획을 발표하여 피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67] 헌병들이 피난민들을 검문소, 교통 통제소 등에 집결시켰고, 피난민수용소에서 한국경찰의 지원을 받아 피난민 심사 작업을 실시하였다.[68] 이와 같이 사태의 급변과 엄동설한 속에서도 피난민의 철수는 전쟁 초의 교훈을 살려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미 제8군사령관은 3일 오후에 미제1, 제9군단이 협조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교두보에서 철수토록 명령하였고, 한강 다리의 통제는 미제1군단장에게 위임하였다. 이때 교두보에서 철수하면 미제1군단은 서울비행장, 김포공항, 그리고 인천에 있는 부대와 시설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하여 부대를 배치하고, 미제9군단은 영등포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의 합류점까지 한강 제방을 따라 부대를 배치키로 하였다. 그리고 서울 북방에 저장된 보급품은 한강 남쪽으로 이동하고 인천항에 비축된 물동량도 줄이도록 하였으며, 군사령부도 최소한의 인원만 잔류시키고 주력을 대구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공산군 연합사령부는 국군과 유엔군의 서울 철수를 간파하고 전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3일 공격을 계속토록 명령하였다. 한선초가 지휘하는 우측 공격제대(중공제38, 제39, 제40, 제50군, 인민군제1군단)는 서울, 인천, 수원, 양평을, 오서림이 지휘하는 좌측 공격제대(중공제42, 제66군, 인민군제2, 제5군단)는 홍천, 횡성, 양양, 강릉을 각각 점령토록 하고 있었다.[69]

미제8군사령관은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교두보와 C방어선으로 철수함으로써 경인지역에 설치된 보급소가 위태롭게 되자 1월 3일 제3군수지원사령관에게 D방어선 북쪽에 위치한 보급시설을 철수토록 하고, 또 인천항은 4일 정오에 폐쇄토록 명령하였다. 4일 정오까지 유조선과 철도궤도 등을 후송할 수 있는 특수선박이 부족하여 약간의 물자가 남아 있었다. 군수지원사령관은 미제1군단의 철수 시간에 쫓겨 인천항, 김포공항, 부평보급소에 있던 160만 겔론의 석유 제품과 9천 톤의 공병자재, 그리고 12대의 화물차에 실린 탄약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포비행장과 인천항을 파괴시킬 요원들만 잔류시키고 기타 지원부대 요원들은 육로와 비행기로 부산으로 철수시켰다.

오후가 되자 김포비행장의 잔류요원들은 건물, 항공유, 네이팜탄 등을 차례로 파괴한 후

68) 최승평(역), 존 웨스트어버, 『한국에서의 전투지원』(서울 : 병학사, 1978), p.72 ; 「피난민강제소개 및 양곡정책에 관한 긴급질문」(1951.1.20), 대한민국 국회, 『국회사』, pp.498-502.

69) 전략문제연구소(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서울: 세경사, 1995), p.90.

마지막으로 인천과 김포간의 송유 시설을 파괴하였다. 이어서 제50공병 항만건설 중대 요원들이 인천항을 폭파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항만건설 중대는 1개의 부두시설과 월미도로 연결되는 도로만 제외한 모든 시설을 파괴시켰는데 여기에는 조류를 조절하는 갑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폭파작업은 5일 3시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긴박한 철수 시간과 가용한 만조시간 등을 고려하면 물자의 파괴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항만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파괴에는 문제가 있었다. 적으로 하여금 항만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점에서는 이론상으로는 타당한 것이었지만, 유엔군이 해상의 주도권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천항의 파괴는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된다.

제3차 작전을 개시한 공산군은 인민군 제1군단을 인천 부근에, 중공 제50군을 수원-금양장리 선에, 제42군을 여주-이천 선에 배치하여 한강 남쪽에 주저항선을 편성하였다. 인민군 제1군단 주력인 제47사단이 인천에, 제17사단은 영등포에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1번 도로와 17번 도로 사이 지역에서는 중공 제50군이 제25사단과 제3사단 및 제1기병사단의 진격을 저지하였다.[70]

곧이은 유엔군과 국군의 반격작전이 전개되었다. 2월 10일 미 제25사단의 기갑부대도 인천으로 진출하여 시가지를 정찰하였다. 그러나 적은 이미 인천 주둔지를 포기하고 철수하였다. 미제25사단은 도로에 매설된 대전차지뢰를 제외하고는 적의 저항이 없어 인천-영등포 도로를 점령한 후 계속 김포공항과 김포반도로 진출하였다. 이때 인민군 제1군단은 저항을 포기한 채 원거리사격의 엄호 하에 결빙된 한강을 도하 철수하였다. 이로써 미제1군단은 인천-영등포-대모산으로 진출 서울 공격을 목전에 두고 정찰활동을 강화하면서 도강 준비에 주력하였다.

1951년 2월 10일 인천이 다시 수복되자 피난 갔던 시민들이 속속 귀환하였는데, 가옥과 재산이 모두 파괴된 참상 속에서 생필품마저도 모자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다시 재건에 임하였다. 당시 인천시청은 부산에 인천시피난민 부산연락사무소를 두고 군산, 목포, 제주에 지소를 두어 인천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71]

휴전의 성립으로 인천시는 포로문제로 인해 다시 부산해지기 시작하였다. 아침부터 국

70) Billy C. Mossman, *Ebb & Flow*(CMH, USA, 1990), p.245.
71) 인천직할시편찬위원회, 『인천시사』(상), p.470.

군과 유엔군은 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동 · 서해안의 도서로부터 철수를 개시하였고, 거제도와 제주일대에 수용되어 있던 북한군 포로 3천 6백 명과 중공군 포로 1천 2백 명을 LST에 승선시켜 인천으로 수송하기 시작하였다.[72]

남자 포로들은 섬에 있는 수용소로부터 바다를 통해 인천까지 직접 수송되었으며, 다시 철로와 도로를 이용하여 인천-영등포-문산으로 수송되었다. 9월초에는 중립국 송환 위원회의 인도측 위원 및 인도 관리군과 스위스, 스웨덴 위원들이 유엔군사령부의 협조로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중국인 반공 포로는 인천에서 즉시 대만으로 송환되었고,[73] 인도관리군은 2월 7일부터 철수를 개시하여 최종 부대가 인천항을 출발하여 21일까지 철수 완료하였다.

Ⅵ. 인천의 전쟁 구호 상황

1.4후퇴 시 인천시청은 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이전하였다가 1951년 2월 10일 재수복 후에 인천에서의 사무를 개시하였다. 이로 인해 인천시민들의 재건노력과 인천시청의 행정력이 하나가 되어 구호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74] 통상 유엔군의 민간인 구호지원 상황은 유엔의 안보결의에 의거하여 회원국들로부터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식량, 의류 등을 접수하기 시작하였으며,[75] 유엔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본격적인 구호는 인천상륙 직후인 1950년 10월 이후에야 가능해졌다.

한국 민간인구호와 관련하여 유엔안보이사회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기초하여 유엔사무총장은 한국구제를 위한 지원자금의 설치계획을 종료하였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9월 중순 이후 유엔에 식량 및 물자를 긴급 요청하였고, 유엔의 구호물자는 10월 이후 도착하였다.[76]

유엔군사령부 통제하의 구호활동은 민간인 구호에 큰 기여를 하였다. 유엔의 '한국 민간인 구호계획'에 의하면, 1950년 구호비는 9,376천 달러였으며 품목별 비율은 식료품

72)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판문점』(하권)(서울 : 육본본부, 1972), p.589.
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한국전쟁 포로』(서울: 국방부, 1980), p.253.
74) 인천직할시편찬위원회, 『인천시사』(상), p.470.
75)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지원사』(서울: 신오성, 1985), p.232.
76) 국방부,『한국전란1년지』, p.D53.

40%, 의류 24%, 기타 비료 연료 건축자재 의약품 등이었다.[77] 그러나 군의 통제 하에 피난민 구호가 이루어짐으로써 각종 국제기구나 민간인 단체 등에 의한 자율적인 구호노력이 제한된 점도 없지 않다.[78]

당시 국내 민간 활동으로 김활난 박사의 적십자위원회가 피난민의 수용, 구제물자 배급 지원, 의용간호부 지원, 부상자 치료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구국총력동맹 등이 결성되어 노력봉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세계보건기구, 국제피난민기구, 적십자사연맹 등에서도 전문가를 보내어 구호사업을 계획하였고, 미국 내 각 기관에서도 피난민을 위한 구호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유엔군사령부와의 마찰로 인해 귀환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당시 국회의 월동대책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연간 전 피난민에 대한 구호양곡으로 280만석(1억 8백만 불 상당)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한된 원조자금중 이와 같이 막대한 액수를 식량으로 소비함으로써 결과 되는 생산시설 복구사업이 차질을 우려하고 금년 피난민 율동 대책에 대해서는 원만한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다"[79]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유엔에서 지원된 원조자금이 구호책보다 생산시설 복구에 비중을 둠으로써 발생한 측면이 많았다.

1952년 현재 피난민 구호는 경기 지역이 피난민 855,064명중 556,7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북도가 피난민 274,241중 163,332명으로 나타났다.[80] 그밖에 사회부에서는 51년 5월말까지 구호병원 70개소를 설치하고 매주 약 115,000명의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상이군경에 대한 구호사업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전쟁 발발부터 1년 동안 이러한 군사 원호사업에 사용한 비용은 총 171억 원 규모였으며, 유엔이 무상 공급한 8만 톤의 식량은 민간인 구호에 사용되었다.[81]

77) 국방부 전편위, 『한국전쟁사』제3권, p.540.
78) 국방부, 『한국전란1년지』, p.277.
79) 『국회사』, p.615 ;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1951.10.25일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16집(서울 : 국방부, 2001).
80) 공보처통계국, 『대한민국 통계년감』(서울 : 공보처, 1952), pp.293-294.
81) 국방부, 『한국전란1년지』, pp.A79-80. 1951년 1월 현재 수용소 피난민 수는 65만여 명이었고 이들에게 지출된 총 구호비는 56억원 정도의 규모였다.

＊전쟁기간 중 인천시 피난민과 구호대상자 통계[82]

년도	구역	총인구			구호대상자		
		원주민	피난민	합계	원주민	피난민	합계
1952	본청	126634	65824	182458	46946	55191	102137
	남동출장소	9593	2106	11699	2335	1556	3901
	문학출장소	6590	496	7086	1299	133	1432
	주안출장소	15237	1511	16748	3001	1444	4445
	부평출장소	25478	4476	29954	21771	4134	15904
	서곳출장소	7843	963	8806	2343	965	3308
	계	181375	75376	256751	67695	63433	131128
1953	본청	123229	69881	193110	27373	36640	64014
	남동출장소	10063	1774	11837	1024	1043	2067
	문학출장소	6312	354	6666	1154	306	1460
	주안출장소	15050	1356	16406	952	407	1359
	부평출장소	26534	3833	30369	4721	2307	7028
	서곳출장소	7794	734	8528	415	357	772
	계	188987	77932	266914	35640	41060	76700

위의 표에 의하면, 1952년 말 현재 인천의 구호대상자 수는 131,128명으로서 당시 인천 총인구수 256,751명의 51.1%나 되는 막대한 수였으며 이들 중 원주민이 67,695명으로 51.6%였고 피난민이 63,433명으로 48.4%에 달하였다. 그러나 인구가 급증하고 한발, 풍수해 등으로 인해 작물수확량이 감소되어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었다. 총인구의 51.1%가 구호대상자라는 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우선 응급구호를 요하는 대상자에 한정하여 구호할 수밖에 없었다. [83]

1953년의 통계는 인천시의 총인구가 전년도에 비해 10,163명이 증가한 266,914명이었음에 반하여, 구호를 필요로 하는 구호대상자는 76,700명으로 전년에 비하여 54,428명이 감소되었다. 구호대상자 수가 점차 감소하게 된 원인은 유엔 및 외국의 각종 민간구호단체와 국내 사회사업 단체의 적극적 활동이 주효하였고, 각종 산업시설을 복구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군부대가 인천에 주둔하게 됨으로써 취업의 기회가 확대된 것에 기인하였다.

82) 인천직할시편찬위원회, 『인천시사』(상), p.471 재인용.
83) 위의 책, p.470.

1954년의 통계에 의하면 6.25 이전 인천시의 총인구수 239,504명에 비하여 82개 동의 총인구가 262,268명이었는데, 이들 중 피난민이 74,366명 원래 인천거주자가 187,902명으로 요구호자수는 원래 인천거주자 10,416명, 피난민이 11,755명으로 총 22,171명이었다. 이것은 1952년의 요구호자 수에 비해 108,957명이 대폭 감소된 숫자이다. 전쟁 중 인천의 취업자가 총인구의 10%에 불과하였으나 휴전이 성립된 직후인 53년 말 취업률이 43%로 증가하였고 다음 해에는 또 50%를 넘어섰다. 이처럼 휴전성립 이후에 취업률이 증가한 이유는 주로 전쟁 후 소비 증가추세에 기인한 것이었다. 원조물자와 잉여 전쟁물자 등의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일시적이나마 경기를 호전시킨 것이었다.[84]

또한 전쟁중 인천시의 취업 비율이 증가한 원인은 다양한 군부대와 노무대가 인천에 상주한 것이 기인하였다. 예컨대 당시 인천에는 미 제8군 노무과의 협조 아래 노무단 중앙보충대 파견대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여기에서 대규모의 노무자를 선발하여 운용하고 있었다.[85] 인천에 파견된 노무장교는 노무감독들의 보고를 종합하고 노무활동을 관찰하여 노무 실행과 인력의 효과적인 운용에 관하여 지휘관에게 조언하였다. 또한 인천에는 노무 장교를 지원해 주기 위해 대규모 노무자 고용지역에 지역노무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실들은 지역의 모든 노무자에 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노무 장교에 의해 요구된 인력소요 보고서를 통합하여 노무자를 고용하였다. 거기에는 준숙련자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많은 노무자가 있었으며 특히 비숙련 노무자의 경우는 더욱 많이 확보되어 있었다.[86]

선발된 노무자들은 최소한의 시간과 인력으로 하역할 경우, 하역을 계약한 계약자는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며 노무자들도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같은 인원으로 다른 조직의 평균량에 미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었다. 유엔군은 인천에서 1950년 11월 성과제 계약을 적용하였다.[87] 이처럼 인천 지역노무실의 노무운용은 전쟁 중 인천 시민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주었다.

84) 위의 책, pp.471-472.

85) FEC, *Indigenous Labor in Korea*(1952, Unpublished), pp.4-5. 미군이 참전한 이후 민간인차량중대, 민간인운반단, 그리고 계약노무 및 직고용노무 등의 노무자들이 운용되었다.

86) ibid., pp.4-5.

87) ibid., p.81.

Ⅶ.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전쟁 시기 인천의 특징과 성격을 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전쟁시기 인천지역은 두 차례 공산군 치하에 들게 된다. 남침 초기 적의 치하에 들게 되고 약 3개월 후 전개된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으로 수복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1.4 후퇴시기 적의 치하에 들어갔다가 유엔군의 반격으로 재수복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작전경과에 따른 인천의 상황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남침초기 북한군 제6사단 제13연대가 7월 4일 07:40 인천을 점령하였다. 임시로 편성된 한국군 김포지구사령부는 북한군 공격을 저지하면서 소사-오류동선을 방어하였으나 6월 30일 북한군 제6사단이 영등포-인천간 도로를 차단하면서 오류동을 점령한 후 7월 3일 오전 영등포를 점령하였다. 이들은 제13연대를 탱크대대와 협동으로 인천방면으로 진격시켜 다음날 07:40 전차 6대를 선두로 인천을 점령하였다.

둘째, 남침 직후 고려된 조치는 피난민에 대한 긴급 대책이었으나 사전계획이 전무하여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남침 당일 수많은 피난민들이 김포방면으로부터 계산동, 부평, 장수동을 거쳐 남하하여 피난하는 것을 목격한 부평, 남동 등의 인천시민들은 사태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피난길을 서둘러 떠나기 시작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체계적인 피난민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에 전력하고 있었다. 인천에서는 보건부가 옹진방면으로부터의 환자를 인천도립병원에 각각 수용하여 치료토록 하였으며, 임시 방역반을 편성하여 전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비상시국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당면한 긴급 행정조치와 후방 치안문제를 담당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셋째, 남침 직후 인천에는 북한군 제6사단 제13연대, 제13사단 제23연대, 제9사단 제87연대가 각각 주둔하여 점령 통치하였다. 남침 직후 인천에는 1950년 7월 4일부터 7일까지 인천을 점령한 북한군 제6사단 제13연대가 집결해 있었으며, 이 부대가 남진한 뒤 북한군 제13사단 제23연대가 7월말까지 주둔하였고, 그 후 북한군 제9사단 제87연대가 인천경계 임무를 띠고 각각 주둔하였다. 그동안 북한군이 남침한 직후 인천에는 전쟁 이전 지하조직을 갖고 있던 남로당원과 보도연맹원들이 1950년 6월 30일 일시에 일어나 활동

함으로써 공산당의 독무대로 변하고 말았다. 이들은 지방행정기관을 접수하고 각 동리에는 자위대를 편성한 다음 남로당에 가담하지 않은 양민의 집을 급습하며 체포 또는 협박하였다.

넷째, 인천상륙작전시 인천지역의 적 병력 규모는 지역 경비부대를 포함하여 약 2,000여 명에 달하고 있었다. 당시 인천지역에는 월미도에 제226독립육전연대 제3대대 소속의 400여 명과 제918해안포 연대 예하부대가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인천 시가지에는 신편 제9사단 예하 제87연대가 8월 12일부터 인천지역 방어임무를 인수하여 담당하고 있었다. 인천시가지 중 월미도 제방으로부터 북동쪽 주안염전까지 5~6Km의 해안방어는 단대호 미상의 여단인 제884군부대 예하 1개 대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다섯째, 1.4후퇴 시 다시 대규모의 2차 피난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인천은 1950년 12월 30일까지는 상당수의 시민들이 철수하였고, 이듬해 1월 3일까지 나머지도 피난하여 1월 5일 공산군이 들어왔을 때 시내는 완전히 텅 빈 유령의 도시로 변해 있었다. 유엔군이 38도선 진지에서 철수하자 이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 주민들도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피난민들의 철수가 작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미제8군사령관은 2일 특별 훈령으로 피난민의 전선 진지 통과를 금지토록 하고, 서울-인천간의 이동도 경인국도가 아닌 좌우측의 보조도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여섯째, 1951년 2월 10일 인천이 재수복 이후 피난 갔던 시민들이 속속 귀환하고 가옥과 재산이 모두 파괴된 참상 속에서 생필품마저도 모자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다시 재건에 임하였다. 당시 인천시청은 부산에 인천시피난민 부산연락사무소를 두고 군산, 목포, 제주에 지소를 두어 피난시의 인천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었다. 전쟁 기간 인천시의 구호대상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유엔 및 외국의 각종 민간구호단체와 국내 사회사업 단체의 적극적 활동에 있었고, 각종 산업시설을 복구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군부대가 인천에 주둔하게 됨으로써 취업의 기회가 확대된 것에 기인하였다.

<참고문헌>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1950.3.25),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국방부, 「일반명령 제40호」(1950.7.9),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인민군제884군부대 제5보대 대대전투명령(1950.8.29),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국방부,「옹진경찰서 용호지서장 김두의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국방부,「갑판사관 정원석소위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국방부,『한국전란1년지』(서울 : 국방부, 1951)
공보처통계국, 『대한민국 통계년감』(서울 : 공보처, 1952)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권(서울 : 국방부, 19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3권(서울 :국방부, 1971)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판문점』(하권)(서울 : 육본본부, 1972)
최승평(역), 존 웨스트어버, 『한국에서의 전투지원』(서울 : 병학사, 1978)
사회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제26권(평양 : 사회과학사전출판사, 198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서울 : 국방부, 1983)
중앙일보사,『민족의 증언』제1권(서울 :중앙일보사, 198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초기전투(서부전선편)』(서울: 삼화인쇄, 1985)
강화사편찬위원회, 『강화사』(강화 : 강화문화원, 1988)
전사편찬위원회(역),『미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상)(서울: 국방부, 1990)
인천직할시편찬위원회, 『인천시사』(상)(인천 : 인천시사편찬위원회, 1993)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 : 반공체제수립과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 1945-48」(고려대 정외과 박사학위청구논문, 1995)
전략문제연구소(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서울, 세경사, 199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서울 : 신오성, 1995)
서경석, 『전장감각』(서울 : 샘터, 1999)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제1권(서울 : 국방부, 2001)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2 : 인천의 발자취』(인천 : 인천광역시인쇄협동조합, 2002)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USGPO, 1961)
HUSAFIK, *History of the United State Armed Forces In Korea*, Vol.1(서울 : 돌베게, 1989)
Billy C. Mossman, *Ebb & Flow*(CMH, USA, 1990)
CIA DAILY REPORT KOREAN BULLETIN(51.1.17일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16집(서울 : 국방부, 2001)
ATIS, Interrogation Rpts, N.K. 6th Div,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FEC, G-2 Report(1950),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ABSTRACT>

The Character of Incheon during the Korean War

Yang, Yong-J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character of Incheon during the Korean War.

Across from the ROK 1st Division stood NKPA divisions. The NKPA 1st and 6th Divisions committed main efforts southward along the Kuhwari - Munsan - Incheon axis and Kaesong - Munsan axis, respectively. On July 4, the NKPA 6th division in Kimpo maneuvered toward Incheon in the morning, spearheaded by six tanks.

In the early period of the War, the lack of ROK government refugee control measures resulted in significant confusion and difficulties in controling refugee movement. The U.N. army soldiers were fearful of the possible infiltration of North Korean soldiers who entered the lines in groups disguised as civilians in refugee columns and then attacked the our positions from the rear.

The UN forces entered upon a new phase in which they could launch a massive counterattack and at once effect a landing at Incheon. While the JCS gave expressed approval to MacArthur's proposal for an amphibious landing behind the enemy's battle lines, they never committed themselves to MacArthur's landing of Incheon.

The UN troops completed their mop up operation in and around Incheon, the city government opened its office to resume its work. The city government also started to restore its function by clearing the litter from destroyed buildings and other public facilities, and thus rapidly restored the public order.

Incheon citizens and officials who had returned to the city ahead of others voluntarily joined in cleaning work in the downtown streets, the city was crowded with many others who wandered from place seeking separated family members.

Key-word : Incheon, Korean War, North Korean Army, Invasion, Refuge, Recover, Incheon Landing Operation, 1.4 Retreat, restoration